



“자기 자신이 못되게 해”
14 선지식-대효 스님

“불법이 악이고 스승은 의사”
5 함께가오설법전-링 린포체

“군불교 중흥에 미래있어”
6 인터뷰-일면 스님

“마음의 눈을 떠봐”
19 문화-마당놀이 김성녀

고기 안먹으면 더 잘산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추계학술대회서 ‘육식문화’ 첫 조명

을 불어 다친 미친 소 열풍에 온 나라가 들쭉했다. “안전하다”는 정부측 해명을 “못믿겠다”는 국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이명박 대통령 탄핵까지 요구하며 연일 시위를 이어갔다. 광화문 등에 밝이면 일렁이던 촛불 물결은 시민혁명을 연상케 한 거대한 햇불을 이뤘다. 시위로, 괴담으로 온 국민이 정신적 공황을 겪던 ‘미친 소’의 한해였다.

<불교평론> 제37호에 게재된 우희중 교수(서울대의) ‘통계수치로 살펴본 동물회생’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에서 도축된 가축은 소가 70여만 마리, 돼지는 1300만 마리, 닭은 6억5000만 마리에 달한다. 식탁을 장식하게 하기 위해 전체 인구보다 많은 가축의 숨통을 끊어 온 셈이다.

2006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가축이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등 지구 온실 효과 기체 방출량의 18%를 내놓는다. 자동차, 비행기 등 운송수단에서 배출되는 양이 13%인 것을 감안하면 육식문화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또한 엄청나다. 영국에서 ‘지구

살리기 위해 일주일도 하루라도 육식하지 말자’는 캠페인이 일어날 만도 하다.

광우병 쇠고기를 멀리해 자신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만 확산된다면 육식문화를 바꿔 지구도 살릴 수 있다. 지구가 살아야 사람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인 까닭이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가운데, 육식문화를 불교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처음 마련됐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은 11월 29일 동국대 법과대학 모의법정실에서 ‘육식문화,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2008년 추계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허남걸·고영선·김동진 교수(이상 동국대)와 박정진 교수(한양대)를 비롯한 국내 학자와 이와이 쇼우고 교수(일본, 동양대), 아사카 교수(스리랑카, 콜롬보대), 황사니엔 교수(중국, 사회과학원) 등 외국학자가 참여했다. 법적으로 간 육식문화,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

#불교, 육식 금지도 권장도 않아
‘초기불교에서의 육식의 긍정’을 발표한 이와이 쇼우고 교수는 “초기불교에서는 원칙적으로 육식을 금지하지 않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삼중정육(三淨淨肉)’이라고 해서 △자기를 위해 죽이는 것을 직접 보지 않았거나 △타인에게 그런 사실을 듣지 않았고 △자신을 위해 도살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는 고기의 섭취는 부처님이 허용했기 때문이다.

<대장경>을 검색하면 육식에 관련한 항목이 2만여 개에 이른다. 대부분 제사에서 외도의 육식관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황사니엔 교수는 주제발표 ‘삼매수침의 육식관’에서 “보았거나, 들었거나, 의심나는 것을 제외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명 존중 차원에서 고려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육식에 대한 상좌부의 관점’을 발표한 아사카 교수는 “불교는 당연히 채식주의를 옹호할 것이라 짐작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불교가 육식을 권장한 것도 아니다. 고영선 교수는 주제발표 ‘한국불교에서의 계율과 육식’에서 “만일 고기를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불식육제는 제정되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 육식이 계율로 금지된 것은 대승 불교 이후다. 중생에 대한 이타행과 보살행을 강조하는 대승불교가 구제 대상인 중생의 육식을 취할 수는 없었다. 예외는 있었다. 환자 등 특수한 경우만 육식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60억 인구가 연간 육지동물 500억 마리 먹어
허남걸 교수는 ‘환경윤리의 관점과 육식문화의 반성’을 통해 “육질이 좋은 소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동물성 사료, 호르몬제는 광우병 등 질병을 가져왔다”고 경고했다. 돌연

변이의 출현으로 인류 존재를 위협할지 모를 조류독감이나 사스 등이 동물 살상과 확대의 과보라는 지적도 있었다. 지구상 12억8000만 마리의 소가 배설하는 분뇨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10억 인구가 굶주림을 면할 양의 곡물을 소가 먹고 있다. “한 해 60억 인구가 음식으로 소비하는 육지동물만 약 500억 마리”라는 통계는 인간이 살기 위해 매년 10배수에 달하는 다른 중생의 삶을 짓이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채식만이 모두가 사는 길
허남걸 교수는 “현재의 고기 생산 방식은 해당 동물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지구환경을 송두리째 뒤엎고 있다”며 “채식주의를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혀 고기를 안 먹고 살 수 있을까? 지나친 채식주의가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견해도 있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굳이 일부러 육식하지 않아도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풍족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육식과 질병발생 및 인간수명에 대한 고찰”을 발표한 김동일 교수도 “육식을 현저히 제한하는 식이는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육식을 허용하느냐, 허용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처럼 ‘육식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청정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옛날에는 살기 위해 고기를 먹었지만 이제는 살고 싶으면 고기를 멀리해야 하는 시대다.

법정을 찾은 육식문화는 모두의 공생을 위해 사라질 것을 주문 받았다. 이제는 육식과 채식의 경계에서 중도가 아닌 채식에 몰입할 때다. 다른 중생의 생명을 존중하는 식생활은 내 자신의 건강은 물론 모두의 환경을 살리는 길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군승파송 40주년, 군승의 날 기념식



“군포교의 선봉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월 25일 열린 ‘제40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에서 참가한 군승들이 불법홍포와 군포교활성화를 서원하고 있다. 사진=박재환 기자

포교의 최일선에서 불교의 미래를 밝혀온 군승. 1968년 5명의 군법사 파송으로 시작된 군불교가 40주년을 맞아 성대한 기념식을 열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교구장 일면)이 11월 25일 W컨벤션센터에서 봉행한 ‘제40주년 군승의 날 기념대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장관 스님, 원로원 혜승 스님, 국군불교총신도회장 김태영 육군대장, 군불교후원회 회장 김태영 육군대장, 군불교후원회 회장 등 불자 10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워 관심을 표했다.

특히 이번 군승의 날 행사에는 군포교 활성화 의지를 표현한 통일가사 및 군승활동의 역경을 담은 ‘군승40년사’ 봉정식이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영진 스님(선정사 주지), 선근 김재철 법사(공군본부 군종실장), 영복 김갑영 법사(3군사 선봉사 등 유공자 감사패 수여가 봉정식에 이어졌으며, 각계 격려사 및 축사도 잇따랐다. 장관 스님은 차사에서 “신라 원광 정인왕 회자 등 불자 10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워 관심을 표했다.”

의 최일선으로 그 중요성을 더한다”고 강조하며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도 불발을 전파하고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군종특별교구장 일면 스님과 과 군승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 앞서 군종특별교구장 호국원광사에서는 군종특별교구장 일면 스님을 비롯해 군법사 100여 명이 참석한 순직군승 천도제와 통일가사 점안식도 병행했다. 노덕현 기자

특별 기획

불황·한파, 마음공부로 ‘희망’을... ▶ 7면
① 생활속의 염불수행-정목 스님

“술 향산화 원역 100%”
청다향
덕유신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물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판형

최신기 맛은
금강선원 뽕잎차
현대 불교 신문 연재 | 초중스님의 뽕잎차 이야기
당뇨병, 고혈압, 혈액순환
주스함에 치세요
뽕잎차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동도사찰사 금강선원
뽕잎차 주문 TEL 055) 931-9590

‘군승40년사’ 무엇을 담았나

1951년 시작된 육군 군승과(軍僧科), 하지만 군승과는 군승이 한명도 없었다. 심지어 목사가 군승과장을 맡을 정도. 이는 군포교를 설치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가 실무진에 의해 군승과로 명칭됐기 때문이다. 명칭과 다르게 목사, 신부들만 중도가 아닌 채식에 몰입할 때다. 다른 중생의 생명을 존중하는 식생활은 내 자신의 건강은 물론 모두의 환경을 살리는 길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특수 기술로 개발 조성한 부처님

1개금불, 1비취옥불, 1백옥불, 1대나무숯불

규격: 소불 - 5치, 7치, 9치, 1자(108-1,000불) / 대불 - 2자, 2자반, 3자, 3자반(법당 내)

LED인등 및 영가 위패단

디자인 등록 제 30-0477206호
실용신안등록 제 20-0439285호

- 안전하고 편리하며 누전이 없습니다.
- 전기료가 기존인등의 1/10 미만입니다.
- 화려하고 장엄합니다.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설치해 드립니다.

LED인등 (해남 대흥사), LED인등 (파주 보광사)

최신식 전선 자동 연등 승강장치

LED전구는 국산품만 사용합니다. 전선은 KS 케이블을 사용하여 안전합니다. 전문기술진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버튼 하나로 상·하 조절하며 명멸과 연등 할 때 편리합니다.

정우불교예술원(구. 정심원) 취급품목
각종불상, 특수불, 옥불, 대나무숯불, 영가위패단, LED인등, LED전구(연등용), 옥촛대, 연등전선승강장치

正宇불교예술원(구. 정심원) www.jeongwoo.info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석사동 1474 전화 031)969-6310 / 직통 011-724-0455 대표 이정옥(진성) 합창
※ 전화주시면 전국 어디든지 방문하여 상담하여 드립니다.